

# 지역단위로서 국가는 유효한가?

-이탈리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 문 수\*

## 《目 次》

I. 머리말	
II. '이탈리아'의 발명	2. 다양한 '로마들'
III. 다양한 '이탈리아들'	3. 언어의 다양성
1. 세 개의 이탈리아들	IV. 맺음말

## I. 머리말

지역연구는 타인(other)을 대상으로 하고 그 타인성(otherness)에 대한 해명과 이해를 목표로 한다. 자기와 구별되는 타인에 대한 인식과 표출은 역사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다. 그것은 문자사용 이전에는 구전의 전설, 속담, 신화 등에서 찾아볼 수 있고, 문자사용 이후에는 연대기, 역사서, 문학, 여행기, 민족지 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sup>1)</sup> 그러나 지역연구는 서구가 타인 인식과 타인 기술을 명백한 지적 영역으로 하면서 2차대전 중에 그리고 2차대전 이후에 전개된 역사적 구속성을 가진다.<sup>2)</sup> 또한 자기에 대비되는 타인의 설정은 필연적으로 발명과 발명주의(inventionalism)<sup>3)</sup>의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 가토 쓰요이, 「민족지와 지역연구-타인에 대한 시선」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의 방법』(전예원, 1997), p. 123.

2) 야노 토루, 「지역연구란 무엇인가」, 야노 토루 엮음, 위의 책, p. 21.

3) 야노 토루에 의하면, 발명주의는 “근대주의적 사고의 한 유형이고, 인간이 자기 자신의 생존과 이해에 관련된 세계에 대해 자의적인 이미지화를 행하려는 취향이다”, 야노 토루, 「새로운 세계관의 조건-발명주의의 극복을 찾아서」야노 토루 엮음, 『지역연구와 세계단위론』(전예원, 1999), p. 324.

여기서 ‘발명’이란 용어는 “아직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로 생각하여 만들어 낸다”<sup>4)</sup>는 사전에서의 의미와는 다르다. 지역연구에서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발명이라는 용어는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묘사한다”는 의미에 가깝다. 말하자면 어떤 지역이나 그 정체성이 ‘실제와 상상’의 혼합을 통해 전문가의 지적 조작을 통해 자의적으로 만들어 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무의식중에 수용하고 있는 지역단위인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는 서구에 의해 발명된 타인이라면, 그것을 해체하고 극복하려는 시도가 지역연구 과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도널드 K. 에머슨(Donald K. Emmerson)은 『“동남아시아”: 이름의 유래와 역사』에서, 사실상 이질적이고,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한계를 정하기 어려운 세계의 일부인 동남아시아가 동질적이고, 통일되어 있으며,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발명되는 것을 추적한다. 그에 의하면 동남아시아는 실제와 상상적인 것의 혼합이다.

“장미”같은 이름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명칭이다. 그러나 “유니콘”같은 이름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명칭이다. 이 둘 사이에 실체를 기술하는 동시에 만들어낸 이름들이 놓여지게 된다. “동남아시아”가 바로 이런 이름들 중 하나다.<sup>5)</sup>

비슷한 맥락에서 서구가 행한 중동,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대한 발명주의적 폐단은 각각 『오리엔탈리즘』, 『아프리카의 발명-영적 인식, 철학 그리고 지식의 질서』, 『아메리카의 해체-타인의 대표』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sup>6)</sup>

그런데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우리는 서구의 근대 국민국가 내지 주권국가도 타인과의 대비를 통해 주체적으로 발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구의 발명주의적 성향은 자기에 대비되는 타인을 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구 자체도 타인의 대비를 통해 자체의 경계와 정체성을 발명하였던 것이다.

이 글은 지역연구에서 근대 국민국가, 특히 서구의 근대 주권국가는 유효한 분석 단위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그동안 지역연구가 제1세계가 중심이 되어 진행되어 온 점을 감안하면, 제기한 문제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유럽지역연구와 그 개별 국민국가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4) 네이버 국어사전, 발명 항목 참조.

5) 도널드 K. 에머슨, 『“동남아시아”: 이름의 유래와 역사』 김경일 편저, 『지역연구의 역사와 이론』(문화과학사, 1998), p. 89.

6) 사이드,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김영사, 2001), 『오리엔탈리즘』(교보문고 2000), V.Y. Mudimbe, *The Invention of Africa: Gnosis, Philosophy and the Order Knowledge*, (Indiana Univ., 1988); Peter Mason, *Deconstruction America: Representation of the Other* (Loutledge, 1990).

하나의 지역단위로 본 ‘유럽’은 역사의 과정을 통해 가변적이었고 그 정체성 또한 가변적이었다.<sup>7)</sup> 비슷한 맥락에서 이 글에서 고찰할 ‘이탈리아’의 지리적 경계와 그 정체성 또한 가변적이었고, 역사적 산물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렇다면, 가변적인 지역단위인 이탈리아는 어떻게 그 경계를 정하고 그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해명을 시도할 것인가?

## II. ‘이탈리아’의 발명

일상생활이나 학술적인 어법에서 민족주의라는 개념은 정의하기 어려운 애매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속에는 기만, 배타, 애매성이 뒤섞여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족주의의 모든 유형에는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민족이 단일하고 단순한 것, 즉 사상이나 감정과는 분리될 수 있는 하나의 확정적인 그룹. ‘인종’ 혹은 문화 같은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sup>8)</sup>는 점이다. ‘이탈리아’라는 개념 속에 배타적 지리적 경계, 즉 국경의 의미와 고유한 이탈리아 민족성(국민성 내지 문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백과사전의 이탈리아 항목은 “북쪽은 알프스 산맥을 경계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와 접하며, 동쪽은 아드리아해, 서쪽은 티레니아해에 면한다”는 지리적 경계와 “이 반도는 동지중해와 서지중해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연·문화에서 순수한 유럽형과 동시에 지중해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sup>9)</sup>

베네딕트 앤드슨(Benedict Anderson)은 “민족은 본래 제한되고 주권을 가진 것으로 상상되는 정치공동체이다”라고 정의한다.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각자의 마음에 서로 교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다.”<sup>10)</sup>

한편 홉스봄과 랭거는 “근대국가와 그 모든 경계가 새로운 것이 아닌 아주 오랜 고대에

7) 유럽은 에우로파(Europa) 신화에서 알 수 있듯이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출발하여 유럽 대륙의 서쪽과 북쪽으로 확장되어 갔으며 1000년을 기점으로 서아시아와 북아프리카를 배제하여 갔다. 2007년 현재 27개국으로 구성된 유럽연합은 탈냉전기의 결과로 서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유럽 국가들과 지중해 국가들도 포함하고 있다. 유럽의 지리적 경계가 변함에 따라 그 정체성 또한 변해갔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스카 할레키, 『유럽사의 경계와 구분』(탐구당, 1993); 볼프강 슈말레, 『유럽의 재발견』(을유문화사, 2006) 참조

8) J. Dikie, "Imagine Italies", D. Forgac and R. Lumley(ed.), *Italian Cultural Studies*, (Oxford, 1996), p. 22.

9) 네이버 백과사전의 이탈리아 항목.

10) 앤드슨,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나남, 1993), p. 21.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그와 동시에 인공적인 구축물과는 다르게 자기주장 이외에 아무런 정의도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인간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정의는 발명된 것이라고 본다.<sup>11)</sup>

민족과 근대국가가 근대적 발명체라면, 그것은 상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의 혼합이며, 상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을 압도하는 혼합물이다. 디키에 의하면 이러한 발명 과정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민족 신화와 민족사의 발명 둘째, ‘상징’(깃발, 언어, 國仗 등)의 발명 셋째, 지리적 공간의 발명, 넷째, 민족은 어떤 것에 반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타인의 발명)의 과정을 거친다.<sup>12)</sup>

그렇다면, ‘이탈리아’는 어떻게 발명되었는가? ‘이탈리아’라는 명칭은 기원전 5세기경에 그리스인들이 이탈리아 반도 발톱에 해당되는 지금의 칼라브리아를 지칭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탈리아의 경계는 그 후 점차 확대되어, 기원전 400년에는 바실리카타 지방까지, 기원전 325년 이후에는 캄파니아 지방까지 확장되었으며 기원전 3세기 초엽에는 아르노 강변까지의 공간을 포함하였다. 이탈리아의 자연적인 경계가 알프스에 이른 것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였으나 이미 기원전 2세기경부터 일부 학자들은 알프스 남부의 반도를 이탈리아로 지칭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로마제국의 황제들이 지리적 경계를 반도 전체에 확립하기 전까지, 이탈리아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였다. 동쪽 해안으로는 일리리아 인들이 들어왔으며, 남쪽에는 마그나 그라키아(Magna Graecia)가 건설되었으며, 북쪽에는 갈리아 인이, 서쪽으로는 리구리아 인, 에트루리아 인, 라틴 인들이 정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종, 언어, 문화에서도 서로 달랐으며 이탈리아의 지형, 즉 서로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아페닌산맥의 존재와 반도를 관통하는 강의 부재는 이러한 차이를 영속화시키고 가속시켰다. 이들은 마침내 로마의 헤게모니 하에 통합되기 시작하였고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정치적 통일이 달성되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이탈리아는 11개의 행정 구역으로 분리되었는데 이 구역들은 다양한 이탈리아들의 모습을 보여준다.<sup>14)</sup>

11) Eric J. Hobsbawm and T. Ranger,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 Press 1983), p. 14.

12) Dikie, *op. cit.*, pp.22-23.

13) N.G.L. Hammond and H.H. Scullard(ed.), *The Oxford Classical Dictiona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p. 556.

14) 이러한 행정구역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으며, 이 때에도 단지 도서 지방만 새로 편입되었을 뿐이었다. *Ibid.*, p. 557. 3번과 4번에 등장하는 ‘아제르’는 지리적, 정치적 영역을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1. 라티움, 캄파니아, 피첸티니 구역
2. 아풀리아, 칼라브리아, 히르피니 구역
3. 루카니아, 아제르 브루티우스(Ager Bruttius)
4. 샘족, 프렌타니 인(Frentani), 마루치니 인(Marrucini), 마르시 인(Marsi), 펠리니 인(Paeligni), 아퀴쿨리 인(Aequiculi), 베스트니 인(Vestini), 사비니 인(Sabini)들이 사는 지역
5. 피체눔(Picenum), 프라투티(Praetutti) 구역
6. 움브리아, 아제르 갈리쿠스(Ager Galicus)
7. 에트루리아
8. 갈리아 치스파다나
9. 리구리아
10. 베네치아, 이스트리아, 체로마니(Ceromani) 구역
11. 갈리아 트란스파다나 구역

이탈리아의 로마화는 오래 동안 지속되었지만 완전한 통합을 성취하지 못한 채 몰락되었다. 로마 몰락 후, 게르만족, 노르만족, 아랍민족의 침입, 중세 도시국가들의 발전, 지중해 해상 도시들의 발달과 몰락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이다. 이리하여 통일 직전 이탈리아 반도에는 2개의 왕국(스페인 부르봉왕조의 나폴리-시칠리아 왕국, 사보야 왕조의 사르데냐 왕국), 3개의 공화국(베네치아, 제노바, 루카), 5개의 공국(밀라노, 토스카나, 파르마, 피아첸차, 모데나), 교황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메테르니히의 표현처럼 이탈리아는 알프스 지역에서 시칠리아에 이르는 전 지역에 단일의 통일 권력이 존재한 선례가 고대 로마 이후로는 없었고 “이탈리아’라는 말은 단지 ‘지리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다.”<sup>15)</sup>

통일의 윤곽이 잡힌 1860년 마시모 다젤리오(Massimo d'Azeglio)는 토리노의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하였다. “이탈리아가 만들어짐에 따라, 이제 우리는 이탈리아인을 만들어야 한다.”<sup>16)</sup> 민족의 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당시 정치인의 고민은 통일 직후 국가의 형태를 단일 국가 혹은 연방을 지향할 것인가의 논쟁과도 연결된다.

물론 이탈리아 통일 이전에 이탈리아 민족 내지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14세기에 이미 언어적, 지리적 영역으로서 이탈리아가 존재한다고 반론을

15) E. Latham, *Famous Sayings and Their Authors*, (Bloomsbyry, 1904), p. 147.

16) *Ibid.*, p. 234. 민족의 발명에 대한 좀더 단호한 언설은 훗날 겔너(Gellner)의 주장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주의는 민족들이 자의식에 눈 뜬 것이 아니다. 민족주의는 민족이 없는 곳에 민족을 발명해 낸다.” E. Gellner, *Thought and Change*, (London, 1964), p. 169.

제기하기도 한다. 주지하다시피 단테는 『속어론』에서 이탈리아 반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 통용에 반대하면서 통일된 이탈리아어의 사용을 이론화하였다. 그러나 이어 발표된 『신곡』에서 그는 이탈리아어 사용의 이상을 포기하고 대신 피렌체 언어가 이탈리아어를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곡』이 이탈리아 언어와 문학에 끼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단테 자신이 당시 이탈리아 반도의 교황파(Guelfismo)와 황제파(Ghibelismo) 대결 속에서 전자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 민족 내지 문화는 그에게서 부차적인 것으로 전락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키아벨리의 표현처럼 “이탈리아는 스스로는 통일할 힘은 없었지만 통일을 가로막는 외세는 충분히 힘을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한 세대 뒤의 페트라르카에 이르면, 이탈리아 민족 내지 문화의 뿌리는 기본적으로 언어가 아니라 고전고대에 대한 학문적 전통이었다. 고전고대의 다양한 사상과 신화에 대한 회귀는 통일되고 단일한 이탈리아가 아니라 다양한 이탈리아들을 강조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의 이탈리아가 아니라, 유력한 사상들은 다른 유력한 사상들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지배적인 신화들은 대립되는 신화들에 대항하듯이, 오히려 종종 대립하는 다양한 이탈리아들에 대해 고려해야만 한다.”<sup>17)</sup>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 직후 하나의 지방언어에 불과하였던 피렌체 언어가 라틴어를 대체하는 표준 이탈리아어가 되었을 때, 고대 로마언어에 의해 유지되어 왔던 학자들의 민족적, 국제적 통일성이 침해당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지식층들을 보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데상크티스의 『이탈리아문학사』(1870)에서는 단테에 기원하는 국민적 언어의 전통이 강조된다. 데상크티스는 18세기의 프랑스혁명 이후 이탈리아 민족문화의 상징으로서 단테 재평가의 열풍을 그의 저서 속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데상크티스가 발명한 이탈리아 문화의 통일성과 연속성은 목적론적인 애국적 신화의 산물이었다는 것은 자명하다.<sup>18)</sup>

지리적 공간, 국경의 관점에서 이탈리아는 북으로 알프스산맥, 동서로는 지중해에 의해 자연적 경계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 자연적 경계는 세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단일하고 불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첫째 지리적 특성은 동질적인 사회적, 문화적, 혹은 경제적 지역의 존재에 대한 필연적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둘째, 이탈리아의 공간은 가변적이었고 또한 내적으로도 다양하고 분리되어 왔다. 셋째, 지리적 공간과 인간의 활동은 지리적 개념에 의해 항상

17) M.S. Sapegno, "'Italia', 'italiani'", A.A. Rosa(ed.), *Letteratura italiana, V: Le Questioni* (Torino, 1986), p.170.

18) 통일운동에 대한 역사서술 또한 애국적·민족적 관점의 연구가 대세였다. 이런 연구 성과에 의하면, 마찌니, 카부르, 가리발디를 상호협력관계의 통일 영웅으로 파악하고 이탈리아왕국의 초대 국왕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를 통일의 구심점이 된 성군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물론 이러한 역사서술은 실제와는 달랐고, 역사왜곡을 낳았다. 정문수, 「이탈리아통일운동을 보는 하나의 시각」 『부대사학』14, (1990), pp. 174-175.

제약되고 중재되어 왔기 때문이다.<sup>19)</sup>

이탈리아의 도시들이 국가보다 작은 지방과 관련된 정체성과 국가를 넘어서는 세계도시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여 온 것도 이러한 지리적 특성과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 유형의 도시들은 주변의 농촌(contado)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단위를 구성하였다. “자신의 출신 지방이나 도시의 전통과 풍습에 대한 지나친 (종종 편파적이고 당파적인) 애착,”<sup>20)</sup> 즉 지방색(Campanilismo)은 가톨릭 교구의 종탑에서 확보할 수 있는 시야, 또는 교회의 종탑 소리가 들리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었다. 반면 베네치아, 제노바, 아말피, 피사 등의 지중해 해양 도시들은 아프리카, 서아시아 등과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sup>21)</sup> 이들 도시들의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 단위는 이탈리아 반도를 초월하고 있었다.

실제와 상상이 혼합된 이탈리아는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개방적이고 다양한 공간 속의 이탈리아는 단일하고 통일적인 이탈리아가 아니라 다양한 이탈리아들로 대변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

### III. 다양한 ‘이탈리아들’

발명된 이탈리아는 단일 문화와 평등하고 균질적인 민족이 존재한다는 환상을 제공한다. 그러나 근대 국민형성은 인종적·민족적·문화적·언어적·종교적·계급적·지역적·성적 등 있을 수 있는 모든 차이가 총동원되면서 단일한 국민과 문화를 지향하는 국민통합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sup>22)</sup> 차이와 차별을 은폐하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민이 전제되는 ‘이탈리아’에서는 균질적인 국민의 단일성이 국가를 지탱하고 국가의 단일성이 국민의 정체성을 보증한다. 이탈리아의 민족, 국민, 국가 정체성이 애매하다는 것은 공간, 문화, 언어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다양성이 국민의 정체성을 보증하고 국가의 통일과 안정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논리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sup>23)</sup> 여기에서는 공간, 문화, 언어의 문제에 국한하여 다양한 이탈리아들의

19) Dikie, "The Notion of Italy", Z.G. Barński and R.J. West, *Modern Italian Culture*, (Cambridge, 2001), p. 19

20) *Il Grande Dizionario Garzanti della lingua italiano*, (Milano, 1988), p. 295.

21) 지중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정문수, 「근대 지중해 항구도시」지중해 세계 18호(2006) 참조.

22) 국민국가론에 대해서는 니시카와 나가오, 『국민이라는 괴물』(소명출판, 2002) 참조.

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세 개의 이탈리아들

이탈리아에는 상이한 두 개의 이탈리아가 존재한다는 이원주의는 통일 직후부터 제기되었다. 남과 북의 사회경제적 비대칭적 발달은 이러한 논리에 한층 설득력을 더해 왔다. 그 요지는 북부가 이탈리아 통일을 주도하였고, 또한 이탈리아의 산업화가 토리노·밀라노·제노바를 잇는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국민국가의 이상에 걸 맞는 북부와 통일 정부의 국민통합에 저항하고 농업이 지배적이고 느린 경제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남부가 존재했고, 그것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민국가에 통합되지 않은 남부의 존재, 이른바 남부문제는 국민형성이 차이와 차별을 동원하면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중핵에 대해 주변이, 중앙에 대해 지방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탈리아를 대변하는 북부에 대한 타인으로서 남부가 필요했다.<sup>24)</sup>

“엄청난 야만성! 이탈리아와 다른 지역! 이곳은 아프리카다. 이 곳 농민들에 비하면 베두인족은 문명적 덕목을 가졌다.”(1860년 정부사절로 남부를 방문한 파니리(L.C. Farini)가 카부르에게 보낸 편지).<sup>25)</sup> “비록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에 속하는 것처럼 보인다.”(1864년 참전군인).<sup>26)</sup>

여기서 전제되는 이탈리아는 로마제국의 찬란한 역사와 르네상스의 문화적 유산을 계승한 문명이고, 그 타인인 미개는 아프리카, 아랍과 동일시되는 남부이다. 이러한 분리는 19세기말 사회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종주의와 사회발전단계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니체포로(A. Niceforo)에 의하면, “남부의 암울한 지중해인들은 개인주의자들이고 따라서 그들의 사회는 분열되었으며 해체되었다. 반면 북부인들은 집단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사회조직, 제도, 규율들을 보전한다.” “본성상 나약하고 방탕한 나폴리인들은 ‘여성지향적인 사람들’이며 이탈리아인은 ‘남성적인 사람들이다.’”<sup>27)</sup> “남부를 지배한 봉건적 중세와 북부에서 싸이

23) 니시카와 나가오, 『국경을 넘는 방법』(일조각, 2006), p. 347.

24) 이탈리아 남부의 발명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문수, 「이탈리아 남부의 발명과 해체」 《국제지역연구》 6권 2호(2002) 참조.

25) C. Cavour, *Carteggi: La liberazione del Mezzogiorno e la formazione del Regno d'Italia*, iii.(1860), (Bologna, 1952), p. 208),

26) Bianco di Saint Jores, *Il brigantaggio alla frontiera pontifica, 1860-63*, (Milano, 1864), p. 12.

27) A. Nicerofo, *L'Italia barbara contemporanea*, (Milano, 1893), p. 293.



튼 근대와의 투쟁. ... 한 국가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고 이탈리아에는 두 종류의 이탈리아인이 있다.”(투라티, 1895)<sup>28)</sup>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등장한 북부분리운동은 무능한 중앙정부와 복지정부에 대한 반발로 활성화되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 위기의 새로운 전개와 연관이 있다. 실업의 증대, 조세부담 가중, 유럽연합의 재정적자 제한 정책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북부의 완전자치 내지 분리를 주장하게 되는데, 북부는 자신의 정체성 발명을 위해 남부와 이탈리아 국가자체를 무능한 정부, 부정부패, 조직범죄와 동일시한다.

북부동맹의 주장에 의하면, “정부와 시민 사이 중재적 행정제도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정부”는 남부의 유산이다. 왜 그런가? 인종이나 문화적으로 남부는 북부와 다르기 때문이다. “피에몬테와 사브아 혹은 남부 티롤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국경선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연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들의 민족성은 본질적으로 같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트렌티노 혹은 롬바르디아를 칼라브리아 혹은 캄파니아와 결합시킬 요소는 아무 것도 없다.” 반면 “북부에는 형질인류학적 통일성뿐만 아니라, ‘기업문화’로 구분되는 경제적 통일성이 존재한다.”<sup>29)</sup> 범죄와 마약복용은 남부의 전유물이었으나 이제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94년 4월 코도네에 수감 중인 카모리스타스(camorista, 나폴리 소재 여성 마피아 단원) 혐의자에 대한 북부동맹의 시위 구호는 “이 땅은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는 사력을 다해 이 땅을 방어해야 한다”라는 것이었다.<sup>30)</sup> 1992년 선거 결과에 대해서도 북부동맹은 “북부는 연방주의와 유럽을 선택하였고, 남부는 아프리카와 파시즘을 선택하였다”고 이원화 한다.<sup>31)</sup>

이탈리아를 남북으로 이분하는 공간 분리는 바냐스코(A. Bagnasco)의 제3의 이탈리아를 낳게 된다.<sup>32)</sup>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탈리아에는 구식의 대규모 산업단지 북서지역과 느린 경제적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남부와 구별되는 북동부와 중부는 새롭고 역동적인 중소기업도 산업지대가 존재한다.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이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금융, 조세, 노사관계에서 북서부의 대기업보다 유리하였고 1970년대의 급격한 경기침체에도 유연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에는 가내공업 수준의 9명 이하의

28) F. Turati, "Tattica elettorale," *Critica Sociale*, (Milano, 1895), p. 79.

29) U. Bossi, *Vento dal Nord. La mia lega la mia vita*, (Milano, 1992), p. 161.

30) *La Repubblica*, 1993. 4월 27일자.

31) 같은 신문, 1992. 4월 7일자.

32) A. Bagnasco, *Tre Italie, La problematica territoriale dello sviluppo italiano*, (Bologna, 1977).

직원을 고용하는 소기업이 이탈리아에서 압도적으로 많으며, 중소기업의 고용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미국식 자본주의에 대비되는 이탈리아 자본주의를 “틈새 자본주의”(‘niche’ capitalism)로 명명하기도 하는데, 중소기업은 특히 제3의 이탈리아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 초 기업 규모에 따른 산업 노동력 고용비율 대비표〉 33)

직원수(명)	이탈리아	독 일	프랑스	영 국	미 국	일 본
1-9	23.3	7.4	8.1	7.2	3.0	5.0
10-250	48.1	30.1	38.9	37.3	33.6	69.1
250 이상	28.6	62.5	53.0	55.5	63.4	25.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마니(V. Zamagni)의 분석에 따르면, 1951년에서 1991년 사이에 직원 499명 이상인 대기업의 고용비율은 25.1%에서 13%로 격감하는데 반해, 직원 10명-19명인 기업의 고용비율이 5.4%에서 15.3%로, 20명-49명인 기업의 고용비율은 8.7%에서 16.3%로 급증한다.<sup>34)</sup> 이 수치는 지하경제의 통계수치가 미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실제 비율은 공식 수치보다는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2. 다양한 ‘로마들’

로마 자체의 장기지속의 역사는 이탈리아 민족 혹은 국가의 역사와 동일시되기 어렵다. 먼저 로마는 로마가톨릭을 연상시킨다. 1866년 이래 세속적인 권력을 박탈당한 뒤, 교황은 수십 년간 가톨릭교도들이 국민적 차원에서 이탈리아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하였다.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 국가와 화해 전까지 교회는 한편으로는 기독교권의 중심지로서의 초국가적 기능을 보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선거에는 적극 개입하여 국민국가에 대항하는 지방 세력을 대변하여 왔다. 2차 대전 이후 교회는 여당인 기독교민주당의 지원세력으로 반공주의를 대변하면서 공산당과 마찬가지로 초국가적인 성향을 띠었다.

33) 이 표는 *Eurostat, Enterprises in Europe*, (Brussels, 1996)의 통계에 기초한 것이며, 이탈리아, 미국, 일본은 1991년 기준, 독일, 프랑스는 1992년, 영국은 1993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34) V. Zamagni, "Evolution of the Economy", P. McCarthy(ed.), *Italy since 1945*, (Oxford, 2000), p. 57.

초국가적인 기독교권의 대변하면서도 로마는 한 때의 영광과 몰락, 민족적 자부심, 제국주의와 시민적 공화주의의 상징으로 이상화되었다는 점에서 국민국가를 대변한다. 로마의 이념은 특히 통일운동이 전개되었던 19세기와 파시즘 시기에 국민통합의 구심지로 발명되게 된다. 마찌니는 ‘제3의 로마’(la terza Roma)에서, 로마가 민족통일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따르면, 로마는 과거에 두 차례 세계를 주도했고 이제 세 번째로 세계를 주도해야 한다. 고대의 로마는 황제가 주도했다면(Roma di Campidoglio), 중세의 로마는 교황이 주도하였으며(Roma di Vaticano), 근대의 로마는 이탈리아민족이 주도하게 된다는 것이다(Roma di popolo).<sup>35)</sup> 여기서 마찌니가 전제한 단일의 이탈리아 민족은 그의 관념 속에 발명된 것이다.<sup>36)</sup> 제노바 출신인 그는 남부를 한 번도 여행한 적이 없었다.

파시즘은 고전적 로마의 제국 영광의 많은 것을 창출하였던 공격적인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의 지원을 받았다. 로마 자체의 중심은 파시스트 이미지에 적합하도록 재설계되었다. 파시스트 권위 상징의 대다수는 고대 로마로부터 빌려온 것이었다. 1925년에서 1932년까지 교육부장관을 지낸 민족주의 주창자인 로코(A. Rocco)는 19세기의 이론가들과 마찬가지로 발명된 이탈리아 민족의 대변자였다. 그는 근대세계가 사회적 유대를 지향하는 힘과 무질서가 대립한다고 보고 로마의 국민국가만이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무질서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에밀리오 쟈틸레가 지적하듯이, 로코의 민족의 개념은 어떤 경우는 집단적인 그룹 혹은 인종으로 간주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물리적 실체가 아닌 정신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sup>37)</sup>

파시즘에서 공화국으로의 이행 시기는 이탈리아 사회의 중심적 가치들의 많은 부분이 재형성되고, 그 속에서 로마의 이미지가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영화 『무방비 도시 로마』(1944, 로셀리니 감독)에서, 로마는 노동계급의 도시, 표준어에 대비되는 로마방언의 사용(피나와 프란체스코), 가톨릭의 중심인 보편을 상징하며 이탈리아를 대변하지는 않는다.<sup>38)</sup>

또한 로마는 이탈리아의 정치의 특수성, 즉 정치적 중심이자 사회경제적 주변인 남부와

35) G. Mazzini, *Scritti editi ed inediti*, 2 vol. (Imola, 1907), pp.245-246.

36) 빈첸조 조베르티는 『이탈리아인들의 도덕적 시민적 우월성에 대해』(1884)에서, 단일한 민족으로서 이탈리아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종종 주장하면서도 발명된 이탈리아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37) E. Gentile, "L'architetto dello stato nuovo: Alfredo Rocco" *Il mito dello stato nuovo dall'antigiulittismo al fascismo* (Roma and Bari, 1982), p.177.

38) Dikie, "Imagine Italies," pp. 24-27.

정치적 주변이자 사회경제적 중심인 북부를 작동시켜온 정당지배체제의 한계, 말하자면 국민국가의 위기가 닥쳤던 1990년대 초에는 시민들의 분노의 초점이 된다. 북부동맹은 ‘로마, 도둑놈들!’의 이미지를 선거 전략에 적극 활용하였다. 여기서 로마는 범죄와 부정부패, 무능의 남부와 동일시된다.

### 3. 언어의 다양성

언어의 다양성은 내적으로는 사회계급의 차이(diastratic), 공간적·지리적 차이(diatopic), 그리고 세대간 차이(diachronic)에 따라 발생하며 외적으로는 국가와 국가의 통합 또는 제국의 분리에 의해 발생한다. 이탈리아는 다양한 언어가 발생하게 되는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준다. 로마제국이 이탈리아의 경계를 반도 전체로 확장시킬 당시로 되돌아가면, 반도에는 다양한 언어적 전통을 가진 비(非)인도-유럽피안 민족들, 즉 리구리아 인, 에트루리아 인, 레티아 인, 피체노 인, 카르타고 인, 사르드 인과 인도-유럽피안 민족들이 정착하고 있었다. 인도-유럽피안 어족은, 북부에 갈리아 인과 베네토 인이, 중부에 움브리아 인, 라틴 인, 오스칸 인이, 남부에는 그리스 인, 메지픽 인, 라티노-살루카 인 등으로 훨씬 다양하였다. 로마제국의 연방정책은 동맹국에 대한 상대적인 언어 관용정책으로 연결되었고 이탈리아 반도 내에서도 토착적인 언어의 다양성을 보전하였다.

중세에는 로마제국 해체 이후, 외부 민족의 지배가 수세기간 계속되었다. 남부에서는 노르만 민족에 이어 아랍인들이 들어 왔고, 북부와 중부에서는 고트 족, 롬바르드 족, 프랑크 족이 들어 왔으며, 동남부 해안에는 비잔틴 인들이 들어 왔다. 또한 교황권력의 초국가적 특성은 언어의 다양성과 고대적 전통을 지속시키고 강화시켰으며 또한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였다.

그 결과 현재 이탈리아에는 게르만, 일리리안-알바니아, 슬라브, 그리스, 인도-아리아, 신라틴 그룹이 존재하고 이들 각각은 다른 민족 언어로 분리된다. 게르만 그룹은 알레만닉, 바바리안-티롤 방언으로, 슬라브 그룹은 슬로베니아, 세르보-그로아트 그룹으로, 라틴 그룹은 이베로-로만스, 갈로-로만스, 레토-로만스, 이탈리아-로만스 그룹으로 세분된다.<sup>39)</sup> 이중 이탈리아 로만스 그룹은 다양한 방언들로 다시 분열되었으며, 이 방언들은 오늘날 이탈리아 인구의 60%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1991년 기준으로 이탈리아 로만 그룹의 방언들 중 약 25%,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4%는 표준 이탈리아어 혹은 다른 그룹의 언어들과 소통이 되지

39) Tullio De Mauro, "Linguistic Variety and Linguistic Minorities," *Italian Cultural Studies*, p. 96.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로 로마 그룹에 속하지 않는 소수언어 사용자 수는 약 250만 명에 달한다.<sup>40)</sup> 경제계적과 소비사회의 도래, 특히 국내 이동과 텔레비전의 보급은 언어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표준어 사용 확산을 가져왔지만, 이탈리아는 여전히 다언어 다문화의 국가이다. 1992년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회원국내 28개의 소수언어 집단이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13개 지역이 이탈리아에 속해 있다.

다문화주의와 다언어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와 호주는 국민의 다양성이 불안과 분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 안정감을 만들어 낸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국민형성 이후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논리 즉 국민의 단일성이 국민통합을 가져온다는 논리에 충실해 왔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1948년 제정된 이탈리아공화국 헌법 6항에는 “공화국은 특별규정에 의거하여 소수 언어 사용자를 보호한다”고 명시할 수 있었다. 또한 헌법에는 20개의 도중에서 5개도를 특별도로 지정하였는데 이 중 3개도 즉, 발레 다오스타, 트렌티노 알토 아디제, 프리울리-베네치아 지울리 도는 북부 국경 접경지로서 소수 언어 사용자가 많은 곳이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변화, 즉 지방분권과 자치의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오늘날 이탈리아가 20개의 도, 95개의 군, 800여개의 시읍면자치체로 분류되지만, 단일의 통일된 이탈리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탈리아는 이데올로기적 입장과 용도에 따라, 이분법(남북), 삼분법(북부, 중부, 남부; 북서부, 북동-중부, 남부; 대륙, 반도, 도서; 산악, 구릉, 평야), 오분법(북서부, 북동부, 중부, 남부본토, 도서)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 IV. 맺음말

우에노 지즈코는 1989년 동구권의 혁명과 1991년 소련의 해체는 ‘국민국가’론의 유행에 일조했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당연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온 국가가 인위적인 장치에 지나지 않으며 국가는 성립하기도 하지만 ... 다른 인위적인 장치와 마찬가지로 수명연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실제 목격했기 때문이다.<sup>41)</sup> 일본에서 ‘국민국가’론을 유행시킨 장본인인 니시가와 나가오는 국민국가가 최종국면에 달한 징후로서 글로벌리제이션, 다문화

40) *Ibid.*, pp. 95, 100. 물론 이 수치는 통일 직후보다는 현저하게 개선된 것이다. 통일 직후 표준어 사용자는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했다. De Mauro, *Storia linguista dell'Italia unita* (Roma-Bari, 1991), p. 43.

41) 우에노 지즈코, 「‘국민국가’론의 공과 죄」, 『국경을 넘는 방법』, p. 367.

주의, 아이덴티티를 설명한다.<sup>42)</sup>

세계화는 지방화를 동반하며 동시에 다른 정체성 추구가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근대 국민국가가 상상과 실제의 혼합을 통해 발명된 것이라면, 그 결과 단일의 국민, 문화, 경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상정하는 국민국가가 지역의 기본 단위로서 이해되고 해명되어 왔다면, 그것을 해체하고 새로운 이해와 해명을 시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최근 근대 국민국가의 견고한 국경을 넘고자 하는 시도는 크로스-보더 국경 관점<sup>43)</sup>, 트랜스-내셔널 국경 관점, 多孔化(porous) 국경 관점<sup>44)</sup>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는 유럽연합의 형성과 지방의 부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기에 지역단위로서의 국가에 대해 기존의 이해 방식과 다른 접근법이 요구되고 있다. 메리 풀브룩(M. Fulbrook)은 심지어 역사 서술에서도 국민국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고 있다.

『20세기 후반에 ‘국민국가들’ 자체는 분석-그리고 역사서술-의 가장 자연스러운 단위가 되었지만, ... 장기적 전망에서 조망하면, 국민국가가 정치 경제적 조직의 지배적인(거의 유일한) 단위였고, 정통성과 충성에 대한 주장들의 독특한 초점이 되었던 것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일 뿐이다. 국민국가는 요약하면 천성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구축물이며, 민족주의적 이상주의의 특성인 유기체적이며 내적인 문화적 통일체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종종 내포와 배제의 독단적인 과정을 수반한 수십 년간에 걸친 전쟁과 정치의 실재를 통해 창조된 것이었다.』<sup>45)</sup>

보충성(subsidiarity)의 원리와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의 등장은 이런 변화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다원적이면서 협력적인 관계로 변화하듯이, 국가라는 지역단위를 통일적이고 불변적인 것이 아닌 좀 더 유연한 가변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이해하는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탈리아 지역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은 완전히 용도 폐기되지 않은 ‘이탈리아’라는

42) 나가노, 「글로벌리제이션·다문화주의·아이덴티티」 『국경을 넘는 방법』, pp. 307-364. 나가오는 글로벌리제이션과 다문화주의가 국민국가를 대체하는 현상이 아니라 국민국가, 즉 문명화의 최종단계라 본다.

43) 사사카 마모루는 해양도시는 장구한 역사성, 초국가적 영영성, 다양한 문화의 잡종이라는 측면에서 국민국가의 경계를 뛰어 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해양도시문화학의 창성-새로운 동아시아론의 구축을 위하여」 『해양문화학』(창간호, 2005)

44) 하라노는 국경자체가 완전히 ‘borderless’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람과 더불어 정보, 물자, 자본이 국경을 쉽게 월경함으로써 인해 국영에 무수히 ‘구멍’이 뚫리는 이른바 ‘국경의 다공화’ 현상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교수신문』 2005. 12월 19일자

45) M. Fulbrook, *Europe since 1945*, (Oxford, 2001), pp. 277-278

지역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유럽연합과의 관계와 지방화의 특성을 유연하게 드러내는 시도 일 것이다. ‘유럽연합-이탈리아-지방’이라는 경계의 유연성과 다양한 이탈리아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은 후속 작업으로 미룬다.



